

고소득 농업 ②

포천인삼연구회 회장 서영교

“인삼종주국의 명예 포천시가 지켜야 한다”

인삼재배 천혜의 기후조건 갖춘 지역은 포천시

2004년도에 설립해 현재 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포천인삼연구회(회장 서영교)는 시설묘상재배에 성공했다. 지난해 가을에 심은 비닐하우스 묘상 1.5톤을 수확하고 내년



인삼재배를 하려해도 어렵다. 그러나 자연조건이 맞는 포천시에서는 얼마든지 인삼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다. 비농사를 짓는 논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연작 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수도작만 고집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서 회장은 관인면 방직리 3천평 농지를 임대해 인삼재배를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의아한 눈초리다.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인삼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위해서라고 한다.

수익면에서도 월등하다. 1만평 기준으로 보면 수도작은 평당 순수익이 3천원으로 3천만원이다. 그러나 인삼은 평년작일 경우 1만평에서 순수익 5억원을 벌 수 있다. 6년근이라고 해도 수도작은 1억8천만원인데 비해 인삼은 5억원이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 회장은 포천인삼발전을 위해 10만평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인천공원에서 내려 삼밭을 둘러보고 흥삼을 캐고 다른 지역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 가공삼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전국의 흉다는 곳에서 인삼재배를 해 보았지만 포천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춘 땅은 없다고 밝히고 품질 좋은 인삼재배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30년 동안 인삼 재배를 통해 이제 승부수가 보이는데 포천 인삼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노력해 나가 인삼 종주국의 명성을 포천시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 회장은 포천시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89 진부령 황태·생태요리전문점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하늘이 준 선물

맛과 건강의 키워드는 황태와 생태요리



대표 김영주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수만 가지 국물요리가 생각나지만 한겨울에는 누가 뭐래도 명태로 만든 국물요리가 제격이다. 명태를 부르는 표현도 다양하다. 생태, 동태, 황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잡는 방법이나 형태, 보관 방법에 따라 명태를 잡는 어촌에서는 더 많이 부르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황태와 생태요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진부령 황태·생태 요리전문점'이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498-5번지에 1월3일 개업해 겨울철 보양식 별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리면 황태, 얼리거나 말리지 않고 잡는 그대로의 명태를 생태라고 부른다.

황태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단백질을 56%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간을 보호해주는 메티오닌 등 아미노산이 풍부해 숙취해소, 간 기능 개선에도 효능이 있어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요즘 같은 불황 속에 세상살이가 답답할 때 혹은 입맛이 떨어질 때, 술 먹은 다음날 숙이 더부룩할 때 뭔가 시원한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 없이 송우웨딩홀 뒤편에 개업한

진부령 황태·생태 요리전문점으로 달려가 보자.

진부령 황태·생태 요리전문점은 황태해물전골, 황태양념구이정식, 황태해물찜, 황태해장국, 생태내장전골, 생태내장탕 등 황태·생태 요리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진부령 황태골 덕장 직영으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자부하는 최고의 황태만을 선별하여 식재료로 사용한다. 황태를 만드는 것은 눈과 바람, 그리고 겨울 햇볕이다. 황태를 말리는 도중 기온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져서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자연과 사람이 만드는 최고의 식재료라 할 수 있다.

김영주 대표(45·사진)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이 진부령 황태골로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황태의 맛은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최적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서른 번 넘게 사람의 손이 가야 비로소 제 맛을 낸다”며 황태에 대한 자긍심이 넘다르다.

김 대표는 음식점 개업이 처음은 아니다. 포천에서 동태집 하나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앞에서 납편이 운영 하는 황태전문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업했다.

진부령 황태·생태 요리전문점은 300여명 대지에 실내는 단체고객을 위한 16인용 별도룸이 5개 마련돼 있고 야외에는 방갈로가 있어 여름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분위기 있는 야외 식사도 가능하다.

‘얼큰한 맛, 시원한 맛, 단백한 맛’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물 대신 황태육수로 시작되는 서비스는 1인이 오셔도 황태 맛을 만끽할 수 있는 황태해장국과 술안주에 좋은 황태해물전골 등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송우웨딩홀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을 비롯한 주차공간도 넉넉하다.

최근 외식 분야의 키워드는 음식맛과 건강이다. 진부령 황태·생태 요리전문점은 맛과 건강을 고루 갖춘 신도보이 웰빙음식의 인기메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규 기자 cho2182@paran.com

상호협력 자발적 성장발전 추구

대진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기업협의회 창립

대진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기업협의회(회장 여희주)는 1월21일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 이리닝스튜디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특색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창립한 기업협의회는 상호협력의 기틀을 위해 동반성장과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체계화하고 녹색성장차세대 성장산업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추진을 꾀하는 등 자발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창립을 기념해 경기도 제2청사 기입지

원과 김경섭 사무관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희주 초대 회장은 “입주기업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기반으로 유익한 정보교환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는 이우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종천 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축하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죽파마린 기능성 계란 특허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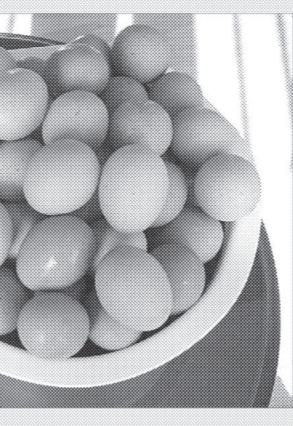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영양소 공급원

구린내가 나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기능성계란이 특허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기능성계란은 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근희 교수팀과 (주)죽파마린(대표 김계준)에 의해 임상실험결과를 거쳐 특허를 받게 이르렀다.

2년 전부터 해양심층 규조토를 천연공한 휴민물질을 응용한 다양한 천연원소를 산란계에 급여해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낳은 계란은 열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먹기를 꺼려했던 계란의 성분을 휴민물질을 이용해 바꿨다는 것이다.



포천죽파마린 기능성계란은 오는 2월25일부터 포천농장(대표 최철규)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498-5번지에 위치한 진부령 황태·생태전문점 전경(단체예약 ☎ 031-544-93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Q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대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도색작업장 근처에서 용접작업중 화재·폭발

▶재해발생원인

2006년 9월 0일(오요일) 14시 40분경 경기도 소재 유료폼 제조 작업장에서 피재자는 유료폼 도색작업 중이었고 근처에서 동료 근로자의 용접작업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옆에 위치한 도색라인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비산하여 점화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가. 용접작업방법 불량 인화성증기 및 가연성가스 체류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접거리에서 용접불꽃 비산방지조치 등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실시

나. 도색작업 장소 등 작업장 배치 부적절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도색라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의 화기장소로부터 이격 되도록 도색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근접거리인 약 2m에서 용접작업을 실시 다. 비방폭형 콘센트 및 절재 수공구 사용 인화성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도색라인 내부에 비방폭형 콘센트, 전등 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탄소강 소재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스파크 등에 의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접작업시 화재·폭발 예방



용접작업 시 주위의 인화성물질은 격리 또는 제거하거나 용접불꽃이 비산 되지 않도록 용접불꽃 비산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색작업 장소 등 작업장배치구조개선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색장소와 용접장소는 서로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며 도색라인은 통풍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화성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방폭형 콘센트 및 수공구 사용 인화성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도색설비 내부에서는 방폭구조의 전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형 수공구(Non spark type)를 사용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100원 100%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問001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이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시

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현재까지 매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셨던 분은 24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1,800여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또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경우가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부 031-544-8700